



기업 CEO들, 민간 외교사절 역할 ... 광주 브랜드 UP

디케이산업 등 외국 선수단·임원 초청 만찬 운동화·수영복 등 물품 지원 기업도 잇따라

110개국 시민 서포터즈 국가별 단장으로 위촉된 광주·전남지역 기업 대표들이 U대회 기간 중 민간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광주 도시 브랜드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 대표들이 주축이 된 광주 국제우호친선협회(운영위원장 김보곤)가 광주U대회 개막 뒤, 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만찬은 물론, 다양한 물품 지원을 잇달아 펼치는 등 외국 선수단 지원에 적극 나섰다.

개막일인 지난 3일 정재열 대중 종합건설 대표의 아프리카 코모로와 니제르, 모

로코 선수단에 1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선물했다.

르완다·에스토니아 단장을 맡은 장 대표가 선수 1~10명을 출전시킨 이들 국가에 '광주의 정'을 나누는 셈이다. 이어 최봉규(도미니카·세네갈 단장) 전일 대표는 7일 지진 피해를 겪었던 네팔 선수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기용 수영복을 선물했다.

8일엔 김광태(아프가니스탄 단장) 한전 레미콘 대표와 첨단 미르치과 박석인(리투아니아 단장)원장도 각각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선수단에 체육복 등을 건넸다. 특히 첨단 미르치과 박 원장은 타지키스탄

선수의 치과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최봉규 대표는 9일에도 아이티와 에콰도르 선수단을 찾아 200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선물했다. 백희중(멕시코) 인아 대표도 바베이도스 선수들에게 운동화 등을 전달했다.

물품 기증 외에도 선수단 만찬을 통해 광주를 알리고 있다.

조용진(인도네시아 단장) 한국 광산업 진흥회 상임 부회장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임원들을 상무지구로 불러 오찬을 제공하는 등 15건이 넘는 오·만찬을 진행했다. 김보곤(태국 단장) 디케이산업 대표는 태국 임원과 선수단 120여명 전원을 초청, 160인분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기도 했다.

김예숙 국제우호친선협회 간사는 "기업

대표들이 물품 기증에 나서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선수도 늘고 있다"며 "광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국 단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U대회에서 국가별 민간사절단 역할을 맡은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는 지난 2013년 창립했으며 광주개최 국제행사서포터즈 활동과 주한 외교사절 초청 등 국제우호 증진 활동, 문화·학술·경제·스포츠 등 국제교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업 대표들이 전 세계 110개국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보곤 운영위원장은 "광주를 찾은 참가국별 선수 및 임원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광주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폐회식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임동률기자exian@



사이 말춤에 금남로는 열광의 도가니

가수 사이(PSY)가 지난 12일 밤 광주시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기념 '세계청년축제' 폐막 공연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서 사귀고 추억, 가족에 대한 애뜻함 오롯이

■ 선수촌 우체국에 접수된 엽서 담긴 사연은

광주 U대회 선수촌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우체국에는 대회기간 동안 고국의 가족·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선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수촌 개촌 이후 지난 12일까지 우체국에 접수된 국제 우편은 총 1330건이었다.

독일 유도 선수 벤자민 뮌니크(25)와 토비아스 스키라(24)가 광주대인시장에서 직접 만든 엽서에는 가족을 향한 정성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붓글씨로 쓴 엽서에는 광주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쌓은 추억들,

조국에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 대한 애뜻함 등이 담겨 있었다.

대만 배구 선수 페이 흥(24)의 동료 사랑도 남달랐다. 그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대학 친구의 부탁으로 광주U대회 기념 우표 16장을 샀다. 동메달을 놓고 벌인 아르헨티나와의 결전을 앞두고는 "광주에 오지 못한 친구에게 메달을 꼭 걸어주고 싶다"며 승리를 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8살 때부터 태권도를 연마했다는 네팔 선수 니마 구롱(여·19)은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한 살 위 오빠에게 엽서



13일 오후 선수촌 우체국에서 독일 유도 선수 벤자민 뮌니크(왼쪽)와 토비아스 스키라가 광주대인시장에서 직접 만든 엽서를 들여보내고 있다.

를 보냈다. 그녀의 엽서에는 "가족을 떠올리며 긴장을 풀겠다"며 오빠에게 의지한 모습을 보이는 대목도 있었지만, "오빠를

위해 옷 선물을 샀으니 기대하라"는 애교 섞인 말도 곁들여 있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외신기자 상대 하는게 최고 영어 공부"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영어 통역 광덕고 정희담 군

수능시험을 100여 일 앞둔 '고3 수험생'도 광주U대회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희담(18·광주 광덕고 3년)군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MPC)에서 영어권 통역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다. MPC에서는 U대회 관련 브리핑이 매일 열리고 국내·외 기자들은 이곳에서 기사를 작성·송고하고 있다. 외신 기자를 상대로 교통 안내 임무를 맡은 정군은 영어를 쓰지 못하는 기자에게는 직접 지도를 그리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세심히 길 안내를 돕고 있다.

애초 근무 시간은 오후 3시까지이지만 정군은 이왕지사 봉사를 확실히 하겠다면서 오후 8시까지 자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군은 광주U대회 개최소식을 알



리는 홍보를 접한 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를 하기로 벌러왔다. 대학입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3시기에 매일 12시간 넘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를 묻자 정군은 "공부는 책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백 명의 외신 기자를 대하는 U대회 활동이야말로 효과 만점인 영어 공부"라고 답했다.

정군은 "대학에 진학해서 다문화 가정·여성·아동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다"며 "이번 U대회 봉사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U대회 이모저모

674건 검사 ... 도핑 양성반응 0 '클린대회'

광주 U대회가 도핑 없는 '클린 대회'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혈액 54건, 소변 620건 등 모두 674건의 도핑 검사가 이뤄졌으나 양성 반응은 한 건도 없었다. 조직위는 폐막 때까지 모두 726건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리스트 전원과 무작위로 선정된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메달리스트 전

원을 대상으로 도핑 검사가 이뤄진 바 있다.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리스트 전원을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핑 적발자가 없는 것은 선수들의 반도핑 의지 덕분이겠지만 대학생 축제로서 인식이 강해 성적이 크게 연연하지 않는 유니버시아드 특유의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분석했다. 한편 조직위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공동으로 반도핑 교육교재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홍보대사 수지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응원

광주 U대회 홍보대사 수지가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게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출신 아이돌 스타 수지는 지난 12일 직접 촬영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제 고향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U대회를 소개하면서 "저 수지도 합

께 하고 싶은데 아쉬워요"라고 밝혔다. 수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내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이라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대학생만을 위한 **밝은광주안과** 눈 에세이

eye' essay 공모전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표현하라!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이라는 주제 속에 '라식 수술 해야하는 이유' '나와 안경' 등 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 광주·전남·전북 대학생에 한해 200자 원고지 8매 내·외로 작성

공모 기간 2015. 6. 26(금) ~ 7. 19(일) *수상작 발표: 7월 20일 오후 5시 예정

공모 주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라식 수술해야하는 이유' '나와 안경' 등 눈과 관련된 내용이면 가능

수상자 혜택

- 대상** 시력교정수술권 1명 (라식·라섹 수술에 한함)
- 우수상** 문화상품권 5만원 5명
- 佳作** 영화관람권 2매 5명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eye 에세이 공모전'
▶ 문의 062)351-9939

주최 (주)광안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